

쟁점 떠오른 '흑산공항 건설'

환경부, 철새보호대책 재보완 요구...2년째 표류

박지원 "반대 위한 반대...국토부 적극 추진을"

전남도 속원 사업 중 하나인 흑산공항 건설 사업 착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정치권에서는 흑산공항 건설이 쟁점이 됐다.

이날 전남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환경부의 발목잡기를 지적하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국토부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흑산공항 예산 삭감 배후가 청와대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의 발목잡기로 계속 표류 중"이라며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흑산공항 건설은 섬과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국책사업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고 올·내년 예산도 책

정돼 있는 상태임에도 환경부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보안을 요구하면서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며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내 소형공항 건설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음에도 철새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 보류시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흑산도·울릉도 공항 건설에 대해 국토부는 찬성하고 환경부는 반대한다고 알려졌지만 제가 환경부장관에게 질의한 결과, 환경부도 찬성한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국토부장관께서도 이 자리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처럼 향후 흑산도·울릉도 공항 건설에 찬성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

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박 전 대표가 환경부 입장을 찬성이라고 단정할 때 대해 박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환경부는 예산도 반영된 사업이니 (승인) 해주고 싶으나 국토부에서 보안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국토부가 흑산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보완대책을 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내년 정부예산에서 흑산공항 건설 예산이 삭감된 데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3명이 지난 8월24일 청와대에 모여 흑산공항 건설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 5일 후인 8월29일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고, 이때 흑산공

항 건설 예산은 전남도 건의액 500억원에서 67%가 삭감된 167억원으로 발표됐다.

황 의원은 "당시 회의록 등 제출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신안군과 흑산도 지역 주민이 흑산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협의한 바 있으나 별도 회의자료나 회의록 등 관련된 문고는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청와대가 흑산공항 건설 예산 삭감을 논의 또는 지시한 내용은 은폐하려고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을 길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립공원계획 변경 등을 심의하는 환경부 소속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흑산공항 협의에서 철새 보호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 판정을 내렸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7월 보완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19일 심의에서 항공기 조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며 재보완을 요구했다. /박지정기자 jkpark@

"지방선거 후보 50% 정치신인으로"

한국당 혁신안 발표...당 최고위 수용은 미지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정치 신인 영입과 세대교체를 위해 광역·기초단체장 및 의원에 출마하는 후보 50% 이상을 정치신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한국당은 지방도호세력, 기득권 세력에 유리한 상황시 공천을 지양하고, 우선추천공천을 대폭 확대하는 공천혁명을 해야 한다"며 "젊은 공천·조기 공천·공정 공천을 바탕으로 한 이기는 공천을 통해 대대적인 세대교체로 당 이미지를 쇄신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공천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가 밝힌 우선공천대상은 정치신인·여성·청년 등이다.

혁신위는 광역·기초단체장 및 의원 등 모든 범주의 후보 중 50% 이상을 정치신인으로 하기로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역 광역 및 기초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불합치가 불가피하다. 혁신위는 이들을 평가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혁신안이 당 최고위에서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홍준표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정치 신인 우대'라는 명목으로 전략공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역 단체장 등을 의도적으로 공천 배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선거제 개편' 시민사회 의견 듣는다

한국당 제외 4당 의원들 민정연대 간담회

정치권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목표로 추진하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시민단체도 가세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편과 더불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즉 각 정당이 국민에게 받은 표만큼 국회 의석이 배분되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시민사회는 모처럼 찾아온 선거제 개편 기회가 정치 공방에 밀려 사라질 수 있다는 절박함을 안고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들과 시민사회 연대체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27일 국회 본관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정연대 추진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김두관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전정배·박주현 의원,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 정의당 심상정·추혜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시민사회에선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와 광동현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공동대표, 이종재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민정연대를 주도한 정동영 의원은 "바른정당, 정의당, 국민의당이 여당과 함께 선거법 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촛불연대가 임박연대로 진화할 때 '내 삶을 바꿔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제가 원내대표를 하던 시절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비례

성 강화였는데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거의 100% 같은 생각이었다"며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뜻이 100% 반영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대의제의 성공 가능성을 확실히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즉 각 정당이 국민에게 받은 표만큼 국회 의석이 배분되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대의민주주의의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선거구제 개편 민정연대는 다음달 중순 출범식을 겸한 선거제 개혁 협의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1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민정연대는 각 당의 입장 차이를 국회 논의만으로는 선거제도의 합의가 어려울 수 있어 더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시민단체도 힘을 보탠다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현재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가 가동 중이지만 당별 입장 차이로 논의 과정에서 협력이 예상된다.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비례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번 선거제 개편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개의 선거구에서 다수의 대표를 뽑는 제도로 소수 정당의 의석을 늘려 다당제를 정착시키고, 사표를 최소화하자는 의도에서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도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정략적 개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형호기자 khh@



머리 맞던 '선거제 개혁' 27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여야 의원과 시민사회 단체 참석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정연대 추진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휴식권 보장

환노위 개정안 의결...1년차 11일·2년차 15일 유급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근속 기간 1년 미만의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근속 1년 미만의 노동자가 사용한 연차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차감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 경우 1년차 노동자는 최장 11일, 2년차는 최장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했고, '임금'이라

는 용어를 '현장조사'로 대체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벌칙 규정에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조정했다.

환노위는 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사업주에게 조사의무와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난임 노동자에게 유급휴가 1일을 포함한 사육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지정기자 jkpark@

민주 전남도당 싱크탱크 설립 '순조'

'전남정책연구원' 내달 발족식...내년 2분기 출범

민주당 전남도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전남정책연구원' 설립이 가시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이계호)은 지난 26일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가칭 '전남정책연구원' 설립추진 준비모임을 갖고 설립추진공동위원장에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 이진철 전 전남발전연구원장, 정기현 순천현대아동병원장을 선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남정책연구원은 전남 발전의 기본과제 개발을 통해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각종 선거에서 나타난 호남민들의 과학적·체계적 분석과 효과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연구기관이다. 또 지역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정책당으로의 역할 중대의 기능도 맡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날 준비모임은 이계호 위원장 주재로 고석규 전 총장 등 공동위원장 3명, 민경진 아이코랩협 구제자연드림파크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준비위원들은 전남정책연구원의 비전과 목표로 ▲지역 맞춤형 어젠다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개발 지원으로 리더십 역량 강화 ▲아카데미 등 교육연수과정 개설 ▲당의 비전과 가치, 민생정책의 전과제 개발을 통해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각종 선거에서 나타난 호남민들의 과학적·체계적 분석과 효과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연구기관이다. 또 지역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정책당으로의 역할 중대의 기능도 맡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학과	수시	정시
인문	신학	신학	28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3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26	2
		유아교육과	8	2
예능	실용음악학과	음악학과	10	5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플레시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15	4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9. 11(월) ~ 15(금) • 전형일 : 2017. 9. 29(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12. 30(토) ~ 2018. 1. 2(화) • 전형일 : 2018. 1. 9(화)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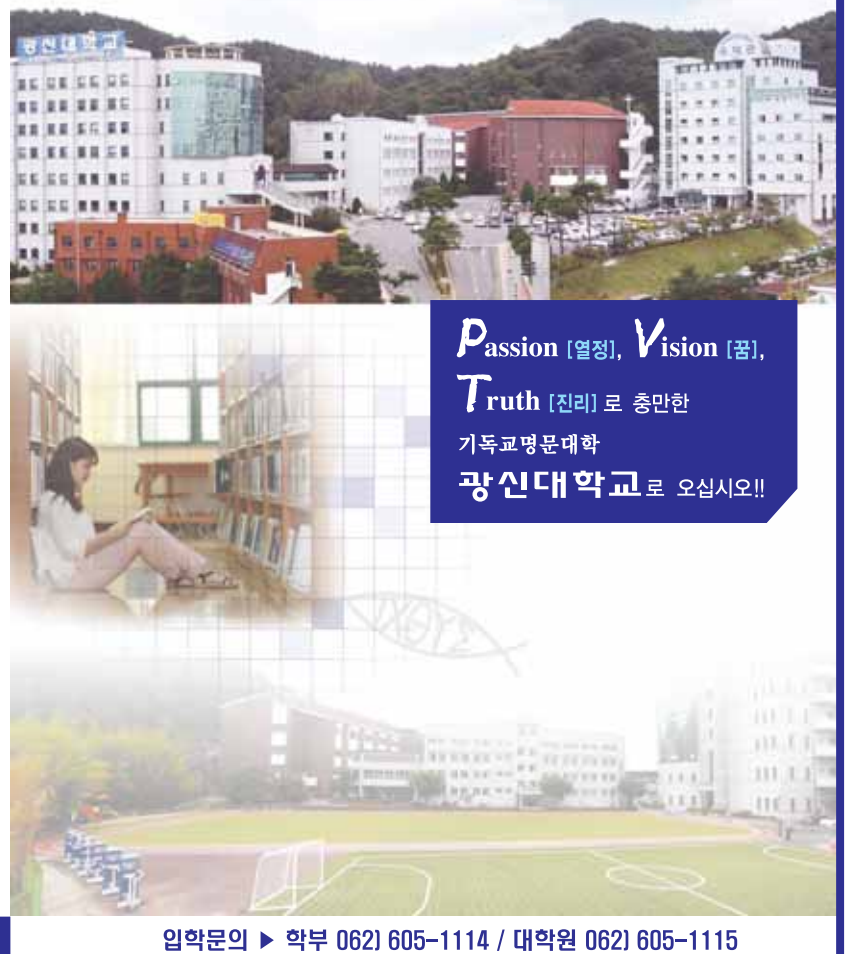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M.Div.)	○
		신학(Ph.D.)	○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D.Min.)	○
		신학(Th.M.)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통합예술치료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음악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추후 공지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